

2018년 12월 14일, 제주시 오라동 김춘숙 씨 댁, 이효순 조사.

김춘숙(여, 1954년생, 제주시 오라동)

- 제주시 이호동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, 결혼 후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서 살다가 현재는 오라동에서 10여 년째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김녕사굴에 큰 뱀이 살아서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. 제주로 부임한 목사는 꿈에서 뱀을 죽이고 나서 집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. 그런데 목사는 무서운 소리가 나서 돌아보았고,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. 나중에 이런 내력을 써 놓은 목사의 아들이 세운 비석이 김녕사굴에 있다.

[제보자] 옛날에는 김녕사굴에 뱀이 나왕 처녀들 제물로 바친다는 말만 들었는데 말을 들  
어 보니까, 항상 매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쳤잖아.

어느 날 목사가 제주도로 부임허영 왕 보니까 김녕에 그런 얘기도 들어지니까,  
그런 제사 지내는 날

“나를 초대해라.”

헤가지고 목사가 갔어. 숨어둬서 제를 막 지내는데 뱀이 나완. 화살로 쏘앙 죽  
여 불었서. 근데 꿈에.

[조사자] 누가 꿈에마씨?

[제보자] 목사가 꿈에

“절대 집 안에 들어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말라.”

그 꿈을 꿔는데도 막 뛰어 가는데 뒤에서 막 무서운 소리가 나난, 확 돌아보는  
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불언.

목사가 죽어 부니까, 아들이 제주도에 아버지가 목사로 왔당 그런 사실로 죽었  
다헤그네 김녕사굴에 가면 비석이 있어. 아들이 비석을 세운 거렌. 나 그걸 이제  
야 그걸 들언. 비석 잇인디 말앗인디 얘기를 들으니깐 그것도 잇인게.

김녕사굴에 제헤그네 제 지내는 거만 알앗주. 어떻게그네 헛 내력을 이제사 알  
앗주.

• 핵심어: 김녕사굴, 뱀, 처녀, 제물, 목사, 꿈, 즉사, 비석